

기획사와 '다운 계약서'... 유명 연예인의 기상천외 탈세 수법

#.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일종의 '다운(Down) 계약서'를 썼다. A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눌 때 "기획사에 더 유리하게 배분한다"고 계약한 것이다.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 간 차이에 착안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저지를 행한다. 이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다. 기획사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배분된 수입에 매겨지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수입차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사적으로 쓴 금액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을 나선 국세청에 최근 적발된 A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포함해 여러 혐의자의 탈세 사실 조사를 마쳤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반칙 특권 탈세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새롭게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신중심 세무 조사 운영 기조 아래에서도 불공정 탈세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 38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세율 높고 법인세율 낮은 점 착안해 범법
벌어들인 수익 배분시 기획사에 유리하게 계약
국세청, "가족·관련 기업도 철저히 조사" 천명

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A씨의 탈세 방법은 국세청이 그동안 잡은 여러 연예인의 탈세 사례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탈세를 시도하는 연예인을 다수 적발했지만, 이런 방법까지 이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 조사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레저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 중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22명과 투자와 고용 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 자금을 사주 자녀를 유학 보내는 데나 호화 사치품을 사는 데 쓴 13명,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승계한 3명 등이다.

호황 현금 탈세자의 경우 골프장·캠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탈세

한 사례가 포함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는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현금으로 내는 고객의 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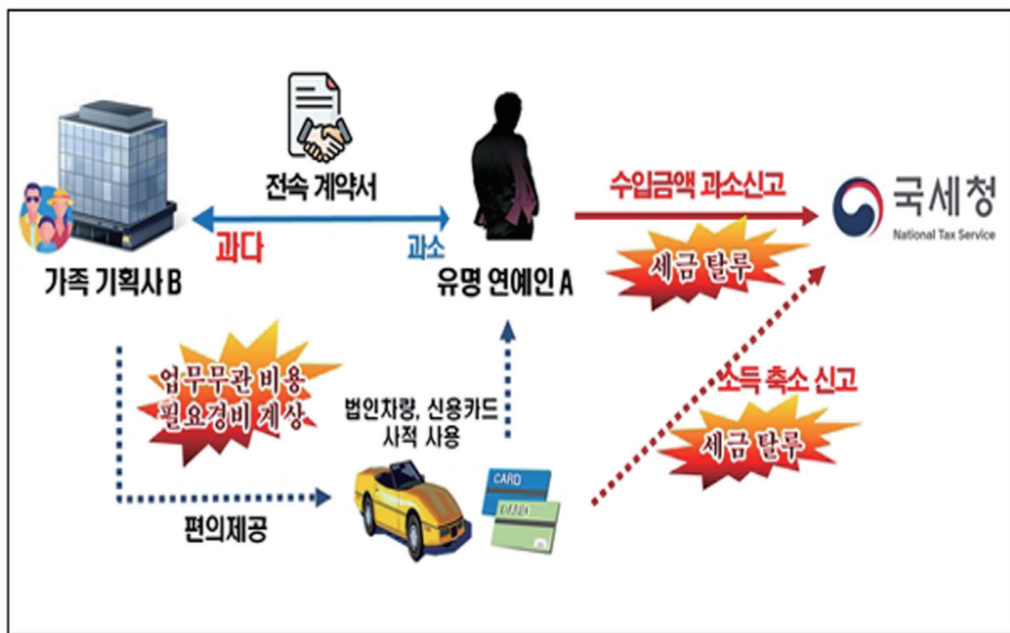
일일적 급여를 가짜로 계상하고, 코스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C사는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20억원대 골프 빌리지(골프장 내 주택)를 구매한 뒤 사주 가족에게 독점 제공했다.

사업 지속 여부가 불분명한 자본 잠식 상태의 해외 법인에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송금한 뒤 거짓 원가를 계상해 이를 유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자금은 사주 자녀의 유학 및 체재비로 쓰였다.

이 밖에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미성년 손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기업 상장 등을 통해 세 부담 없



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개인은 평균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국장은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관련 기업 등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승철, 35주년 기념 '마이러브'...소녀시대 태연과 듀엣

히트곡 '소녀시대' 리메이크로 인연 맺어...오늘 오후 6시 공개



가수 이승철이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솔로 가수 태연과 듀엣한다.

3일 이승철 소속사 플렉스엔에 따르면 태연이 피쳐링한 이승철의 데뷔 35주년 기념

스페셜 싱글 '마이 러브(My Love)'가 5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이번 참여는 소녀시대가 데뷔 초창기 이승철의 히트곡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하며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음원 공개에 앞서 4일 티저를 선보였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번 티저에서 이승철과 태연의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선후배 간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마이 러브'는 이승철이 2013년 발매한 11집 앨범 타이틀 곡이다. 이번에 듀엣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플렉스엔 관계자는 "2021년 상반기 35주년을 완성하는 앨범을 공개할 예정이며, 태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대급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귀뜸했다.

한편 이승철은 오는 28일부터 전국 5개 도시 투어 콘서트 '우리, 이제 만나요'를 돈다.

케이بل 음악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캡틴'의 심사위원으로도 나선다.



이적, 김진표와 15년 만에 호흡

"원손잡이" 25년 뒤, 돌팔매"...오는 11일 정규 앨범 발매

가수 이적이 래퍼 김진표와 15년 만에 호흡을 맞춘 곡으로 돌아온다.

4일 소속사 뮤직팜에 따르면 김진표는 이적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정규 앨범 '트레이스(Trace)' 타이틀곡 '돌팔매' 피쳐링을 맡았다.

이적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돌팔매' 스포일러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돌팔매 (feat. 김진표)'라고 쓰여있는 이미지에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적과 김진표는 1995년 듀오 '패닉'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2005년 12월 발매한 패닉 4집 앨범 이후 15년 만이다.

이들은 패닉으로 '원손잡이', 'UFO' 내 낯선 서랍 속에 작은 바다, '정류장' 등의 노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타이틀곡 협업을 통해 패닉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돌팔매', '원손잡이' 25년 뒤, 진표와 함께 합니다"라고 예고했다. '원손잡이'는 1995년 패닉 1집 수록곡이다.

한편 이적은 2013년 발매한 솔로 5집 '고독의 의미' 이후 7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는 패닉, 깃스, 카니발 등의 그룹과 솔로 앨범을 통해 독특한 음악화법을 구사해왔다.

휘성에 '마취유도제' 수십병 판매한 30대...2심도 실형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변명하고 반성 안해”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결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소 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남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의 항소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작해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27)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남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책 등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즉시 체포하지 않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신의 방이 아닌 주방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방은 체포된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고, 피고인의 지배 또는 관리 범위 내의 장소로 보인다"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위가 발각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실형을 선고했다.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체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故 박지선 비보...박성광에 도넛은 악플 테러

고(故) 박지선의 비보와 관련, 동료 개그맨 박성광이 때 아닌 악플 테러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박지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일부 누리꾼들은 박성광의 SNS에 도넛은 악플을 달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지선과 박성광은 과거 연인 콘셉트로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두 사람은 실제 개그계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성광은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직후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으며,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박성광의 SNS에 '악플러들 싹 고소하라', '이상한 글들에 휘둘리지 말고 힘내라', '악플 무시하고 건강 챙겨라' 등의 댓글을 달며 응원하고 있다.